

# 목포신안통합추진위, 민간주도 통합 분위기 띄우기 박차

### 휴대용 전단 배부·농산물 구매하기 운동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지역민 교육프로그램 '어울아카데미'·통합지역 견학·워크숍 추진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통합 필요성에 대한 지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추진위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통합이 무산된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관 주도의 일방적 통합 추진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결성됐다.

올해 3월에는 기존 25명이었던 추진위원을 78명으로 확대 구성해 출범했다. 지역사회단체와 전문가, 교수, 홍보 담당 등으로 다양하게 꾸려졌다.

추진위는 목포·신안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추진위가 운영하는 '어울아카데미'는 지난 11월 첫 강좌를 시작해 3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 과정은 지난 4월 개강해 '지역을 디자인하여 미래에 전달하자'를 주제로 네 차례에 걸쳐 강좌를 진행했다.

58명의 수료생은 통합에 성공한 경남 진주-진양을 찾아 현장학습을 받기도 했다.

추진위는 이 밖에도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신안군 유치 서명운동과 목포신안 통합전략-로드맵(기본계획) 수립 워크숍, 서남권 통합 대토론회 등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해왔다.

추진위에 속한 홍보위원들은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가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발간 홍보물.

이들은 신안군 생산 농수산물 구매 촉진, 화합형 공동 축제 개발, 일대일 대면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을 냈다.

이달에는 지역민 밀착 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휴대하기 좋게 만든 이 발간물은 목포·신안 통합 필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추진위는 선착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관련 홍보물을 내걸 계획이다.

추진위는 올해 하반기 ▲추석맞이 신안군 농수산물 구매하기 운동 ▲점으로 찾아가는 소통나눔 행사(이·미용, 장수 사진) ▲목포항구축제 신안 우수농수산물 상생 장터 개설 ▲전국체전(장애인체전)에 신안군 자매결연주민 초청 공동 응원 ▲통합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펼친다.

추진위는 신안목포통합추진준비위원회와도 정례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폭넓게 교류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최대목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중심으로 통합 전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며 "통합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데 진심과 정성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철주 목포시 큰목포기획단 통합협력팀장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이 통합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민간 중심의 교류를 더욱 확대 지원할 것"이라며 "통합 이전이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편의 사업을 발굴해서 대승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신안군, 홍콩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1004굴' 홍보

### 20일까지 홍보관·시식 코너 운영 세계양식관리회 ASC 인증도 박차

신안군이 대표 수산물인 '1004굴' 수출길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으로 갔다.

신안군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홍콩 국제식품박람회(HOFEX)에 참가해 1004굴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1004굴 프로젝트'를 펼치며 굴을 하나씩 날개로 키워내는 개체굴을 수출 주력 상품을 내놓고 있다.

신안군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110억원을 확보해 개체굴 양식시설 규모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식학교를 수료한 어민에게는 양식장을 빌려주고 있다. 이달 현재 6명의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양식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신안 개체굴인 1004굴은 해양수산부 10대 수출품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1004굴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의 청정 갯벌에서 나고 있다. 개체굴 중주국인 유럽산보다 깔끔한 맛과 풍미를 자랑한다. 굴은 서양에서 인기 있는 수산물 가운데 하나이며, 300년 넘는 굴 양식 역사를 지니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 등은 자연산과 같은 모양, 맛, 향을 지닌 개량품종인 개체굴을 개발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신안 해역의 특성 덕분에 이곳에서 난 1004굴은 저장성이 좋아 백화점·호텔 등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되고 있다.

신안군은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식시설 규격화(밀식 방지)와 출하 등급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세계양식책임관리회의 인증제도인 ASC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홍콩 국제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 식품박람회로, 세계 50여 개국의 전문 구매 담당자(바이어)와 1100개 업체가 참가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홍콩 국제식품박람회 에서 1004굴 홍보관과 시식 공간을 운영하며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군 청정갯벌과 그곳에서 생산된 1004굴의 우수성을 알릴 것"이라며 "세계 전문 바이어를 통해 수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신안군이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홍콩 국제식품박람회(HOFEX)에서 1004굴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관을 운영한다. 신안군이 지난 2019년 참가한 홍콩 박람회 모습. <신안군 제공>

## 진도군 '보배진미쌀' 명품으로 키운다...재배기술 교육

### 100여 농가 병해충 방제 등 소개 생산단지 조성 참여 농가 모집도

진도군이 최근 지역 대표 쌀인 '보배진미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했다.

보배진미쌀은 선진농협 소속 100여 가구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진도군은 최근 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쌀 재배기술 교육'을 했다.

교육에서는 병해충 방제와 생육시기별 물관리 방법, 품종 혼합 대응 방안 등을 소개했다.

진도군은 '진도 명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진도 보배진미쌀은 진도의 비옥한 토지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밥맛이 좋고 윤기가 흐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도 대표 벼 품종 새정무를 재배하는 농가와 100%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도정시설을 거처며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보배진미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명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급하길 기대한다"며 "농가들과 협력해 보배진미쌀이 전남 10대 브랜드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영암군 211억원 들인 삼호수영장 21일 개관

영암군 삼호실내수영장(사진)이 오는 21일 개관한다.

삼호읍종합문화체육센터 안에 자리잡은 삼호실내수영장 건립은 지난 2018년 '지방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사업비 211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040㎡ 규모로 조성됐다.

성인 풀 7레인, 어린이 풀 2레인을 갖추고 있다.

2층 체육단련실에는 27종의 운동기구가 비치돼 수영장 이용객이 다양한 체력 증진 활동도 할 수 있다.

영암군은 정식 개관에 앞서 18일까지 수영장을 임시 개방하기로 했다. 개관식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임시 개장일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누구나 무료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4시다.



정식 개관하면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삼호실내수영장(061-470-2686)에 문의하면 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삼호수영장 개관은 영암 서남권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 수질관리 철저 등으로 영암군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영광군, 다음 달부터 '치매안심 택시' 운행

### 영광모범택시운전자회와 '이동편의 서비스' 업무협약

영광지역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치매안심택시'가 다음 달부터 운행한다.

영광군은 영광모범택시운전자회와 최근 '치매안심택시 이동편의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치매안심택시는 경중 치매 환자와 가족, 치매 정밀 검진 대상자·가족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이 치매안심센터가 추진하는 치매 검진과 예방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택시를 마련했다.

치매안심택시 운전자는 모두 11명으로, 영광군 치매안심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가족 배려 교육을 하고 안전 지침을 전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환자 센터, 치매 가족 헤아림 교실, 치매예방교실은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영광군과 영광모범택시운전자회가 '치매안심택시 이동편의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관련 문의는 치매안심센터(061-350-5097)로 하면 된다.

영광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이동권을 보장받고 치매 가족이 돌봄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창희 기자 kcw@kwangju.co.kr

## 목포시 '찾아가는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 연말까지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

목포시가 오는 23일부터 '찾아가는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달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행정복지센터를 차례대로 돌면서 열린다.

이번 상담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부동산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할 예정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계약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목포시지회 소속

공인중개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공공 지원 서비스, 계약 사례 등을 안내한다.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7, 864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을 연계한다.

목포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때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안심계약 상담센터에서 상담 지원을 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